

CEO 동정

### 2013 부산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 참여



김광재 이사장은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열린 '2013년 부산 국제 철도 및 물류산업전' 개막식에 주최기관장으로서 참여해 우리나라 철도 기술력과 사업역량을 알리는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 방글라데시 철도청 부청장 일행 접견



김광재 이사장은 6월 13일 방한한 암자드 호사인(Amzad Hossain) 방글라데시 철도청 건설담당 부청장 일행을 접견하고 방글라데시 철도건설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영남본부 임직원 CEO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6월 12일 영남본부 회의실에서 80여 명의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철도변화'라는 주제로 CEO특강을 가졌다.

기사시판

### 주요뉴스 ('13.6.8~'13.6.14)

- 靑 "차정부 지방공약 경제성 있어야 예산 투입" (동아일보06)
- SOC 예산난에... 정부, 민간투자사업 확대 추진 (국민일보15)
- 수서발 KTX사업의 과제 (한국일보34)
-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 (세계일보22)
- 정부 공적자금 회수 속도전... 대우조선도 판다 (서울신문15)
- 보편적 세계개혁을 고민할 때다 (한국경제38)
- "KTX 훈련소역 국민 편익위해 필요" (대전일보17)
- "코레일도甲의 행보... 분양 계약서 휴지조각 됐어요" (한국일보14)
- "행복주택 등 국책사업 주도할 것" (서울신문22)
- 서울 지하철 7·8월 낫시간 감축 운행 (서울신문01)
- SOC사업, 민자 전환에 앞서 해야 할 일 (국민일보23)
- 철도공단, 해외시장 개척 활발 (충청투데이09)
- 철도시설공단 오늘부터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중도일보08)
- 감사원 고위직, 민간기업 첫 제동 (한국일보06)
- 국가발주사업 담합판 입찰취소 (경인일보06)
- 공약가계부 재원확충 '착시' 논란 (서울신문04)
- 교통유발부담금 내년부터 2배 오른다 (한국경제19)
- 환동해권 철도건설사업 진행 순조 (경북일보06)
- 시속 430km 차세대 고속열차 '해무' (한국경제09)
- "행복주택 건설 줄속" vs "행복주택 시기하나" (동아일보06)
- 공공부문에 방치된 '눈먼 돈' 만 16조 (한국일보01)
- '관리사각' 지방공기업 경영진단 한다 (서울신문04)
- 韓電 등 공기업 9곳 부채, MB정부때 156조 늘어 (조선일보01)
- 강릉 주문진읍 시가지 환경정비 완료 (강원도민14)
- 김포 도시철도 차량시스템 건설비 2203억원 최종결정 (인천일보12)
- 행복주택, 박근혜정부 갈등관리 능력 시험대다 (매일경제35)
- 위험수위 다다른 공기업 부채 방관할 텐가 (국민일보27)

### 저비용·고효율! 경제적 철도 건설에 앞장

- '역사 승강장 길이 축소 등 건설기준 개정으로 사업비 절감' 성과 가시화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60~70년대 일본 기준을 답습해 고비용·저효율로 비경제적이었던 철도설계기준에 기술발전을 반영하고 이용객의 편의이 우선시 되도록 대폭 개정하여 철도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과거 기관사가 열차 정차 위치를 지나쳐서 정차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승강장을 5~10m 더 길게 건설했으나, 스크린 도어 등 기술발전을 반영하여 승강장 여유길이 축소(스크린도어 설치구간 5~0m, 자상 일반여객열차 20~10m, 지하 전동차 5~1m) ▲열차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지하구조물 단면의 하중계수 및 강도감소계수 축소(19~14%) ▲터널구간 숏크리트 시공 시 강섬유(steel fiber) 투입량 축소(40~37kg/㎡) ▲고속열차의 주행 안전성 재검토를 통한 최소곡선반경 축소(350km/h, R=5000~4700m) ▲고속열차의 등판능력 및 제동능력 향상 등을 반영한 선로 최대기울기 확대(여객전용선, 25~35%) ▲차량한계 및 차량주행 중 풍압 등 안전성 재검증 결과를 반영한 선로중심간격(250<V≤350, 4.8~4.5m) 및 시공기

면폭 축소(자갈도상 200<V≤350, 4.5~4.25m) ▲유럽의 표준열차중체계를 모델링하여 이원화(일반철도, 고속철도)된 표준열차중체계를 일원화(여객+화물 혼용선 : KRL2012, 여객 전용선 : KRL2012의 75%) 등이다.

※천분율(%) : 1/1000 단위  
※KRL하중(Korea Rail Load)

이런 개선 사항을 2020년까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사업에 반영하면 약 2조 6000억원이 절감되어 경제성(B/C) 분석 시 저비용·고품질의 철도건설이 가능하고, 세계적인 수준의 철도건설기준을 갖추게 되어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여 소중했던 국가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설계부터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차량기술 발전에 따른 차량한계 및 건축한계 기준과 정거장 부분선 및 장비유치선 설치기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과잉설계가 없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경부선 안양천교·석수동천교 개량공사 착수

- 홍수 시 우수흐름 개선과 주민 생활환경 개선 기여 -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6월 10일 경부선 관악역과 안양역 사이에 위치한 안양천교 및 석수동천교의 개량공사를 착수하여 2016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량하는 철도교량은 국내에서 열차운행 횟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1일 527회 열차가 통과하는데, 1981년 경부선 복복선 사업 당시 건설돼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의 일환으로 공사가 시행된다.

안양천교는 폭 24m, 길이 141m에 사업비 250억원, 석수동천교는 폭 22.3m, 길이 17m에 사업비 50억원이 소요돼 총 300억원이 투입된다.

안양천교와 석수동천교의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교량하부의 여유고가 확대되어 홍수 시 우수흐름이 개선돼 재해를 예방하고, 교량 상부 유도상화로 진동과 소음을 저감시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철도 여유부지에 마석우리 전통 5일장 부지 제공

수도권본부(본부장 이수형)는 전통 5일장을 살리기 위해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314~2번지 일대 철도부지 4197㎡를 장터용 부지로 제공한다.

본부가 마석우리 일대의 철도고가 하부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던 마석우리 전통 5일장이 6월 18일부터 다시 열린다.

이전될 장소에는 약 110개의 가설 점포가 설치돼 연간 약 18만명이 이용하여 48억원의 매출이 발생하고, 공단은 매년 1400만원의 사용료를 받아 10년간 1억 40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다.

최종현 재산관리운영처장은 "전통 마석우리 5일장이 새롭게 이전·단장함으로써 남양주시의 명물로 재탄생한 물론 철도 이용객 증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철도부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단수익창출에 적극 활용되도록 지자체와 상생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위치	고가 열	고가하부	고가 열
내용	이동 통로: 약 30개	이동 통로: 약 60개	이동 통로: 약 20개

<점포배치도>

### 영남본부, '사랑의 열매'를 수다

- 1사촌 자매결연 마을 '사과열매 숙기' 봉사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 직원 20여 명은 지난 31일 1사촌 자매결연을 맺은 밀양시 원당마을을 찾아 '사과열매 숙기' 작업에 일손을 보탰다.

마을 주민들은 바쁜 업무 중에도 농사일을 돕기 위해 찾아온 직원들에게 손수 만든 음식을 대접하며 고마움을 전했고, 직원들은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러 다시 올 것을 약속했다.

본부는 2006년부터 원당마을과 1사촌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봄·가을 농번기에 일손을 돕고 있다.

<영남본부 김시환 기자>



### 경조사

- 수도권본부 북부건설처 김명수 차장 부탄상 - 발인 : 2013년 6월 10일
- 호남본부 건설처 신호/통신PM부 양만용 차장 장남은 - 발인 : 2013년 6월 15일

- 기술본부 차령처 백승호 부장 장남은 - 발인 : 2013년 6월 22일 17시 30분
- 장소 : 서울 서초구 임원동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프라다아 2층 중홀